

외국인 관광객 대상 짝퉁 판매 일당, 상표경찰에 ‘덜미’

- 지식재산처, 부산 위조상품 판매점 13곳 단속, 12명 송치 및 7,896점 압수-
- 외국인 관광객 지갑을 노리는 위조상품 판매행위 집중단속 추진 -

최근 한류 열풍으로 외국인 관광객들의 방문이 늘어나면서, 이들을 대상으로 한 짝퉁 판매에 대해 지식재산처가 칼을 빼들었다.

지식재산처(처장 김용선) 상표특별사법경찰(이하 ‘상표경찰’)은 부산 국제시장과 부산 남부 일대 주상복합 상가에서 해외 유명 상표 의류·악세사리·가방 등 위조상품을 판매한 A씨(남, 43세) 등 12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.

상표경찰은 위조상품 판매 거점이 국제시장에서 부산 남부 일대 신규 상권으로 이동한 정황을 포착하고 선제적 단속을 실시한 뒤, 국제시장까지 단속을 확대해('25.9.11.~9.12.) 위조상품 판매점 13곳에서 총 7,896점(정품가액 약 258억원)을 압수 조치했다.

<단속 피해 새로운 상권으로 이동.. 위조상품 판매 거점 다변화>

상표경찰은 부산의 한 상가 단지에 위조상품 판매업자들이 입점해 명품 브랜드 의류·악세사리·가방 등 위조상품을 판매해 온 정황을 확인했다. 이들은 새로운 상권으로 이동하며 불법 영업을 지속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.

이에 상표경찰은 주상복합 상가 내 위조상품 판매 거점 10곳에 대해 합동단속('25.9.11)을 실시해 총 4,194점(정품가액 약 76억원)을 압수하였다. 그간 소규모·일회성 단속에 그쳐 실효성이 제한적이었으나 이번에는 강제집행을 통한 동시 단속으로 위조상품 유통 거점에 대한 실질적인 단속 성과를 거두었다.

<외국인 관광객을 겨냥한 국제시장 ‘비밀매장’ 위조상품 판매>

국제시장 일대에서는 외국인 관광객 유입 증가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 대상으로 한 비밀매장 방식의 위조상품 판매가 확인되었다. 이에 상표경찰은 국제시장 내 판매장 3곳의 매장 내부 및 비밀매장에 대해 단속('25.9.12)을 실시해 명품 브랜드 위조 가방·지갑 등 3,702점(정품가액 약 182억원)을 압수했다.

외국인 관광객들은 SNS 등을 통해 판매 정보를 접한 뒤, 관광가이드의 안내를 받아 비밀매장을 방문해 위조상품을 구매한 것으로 확인되었다. 특히 일부 외국인들이 국내 위조상품 구매행위를 SNS에 소개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어, K-문화가 전 세계로 확산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.

지식재산처 신상곤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은 “K-POP, K-콘텐츠의 세계적인 인기로 해외 관광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위조상품 판매 등 국가 이미지를 실추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”이라고 밝혔다.

※ 붙임 1. 외국인 대상 위조상품 판매 현장 사진

2. 부산 남부 주상복합상가 위조상품 현장단속 사진

담당 부서	지식재산보호협력국 상표특별사법경찰과	책임자	과 장	김종수 (042-481-5959)
		담당자	사무관	문한규 (051-501-9708)

붙임 1

외국인 대상 위조상품 판매 현장 사진



위조상품 일반매장



위조상품 비밀창고



위조상품 비밀매장 1



위조상품 비밀매장 2



전통시장 일대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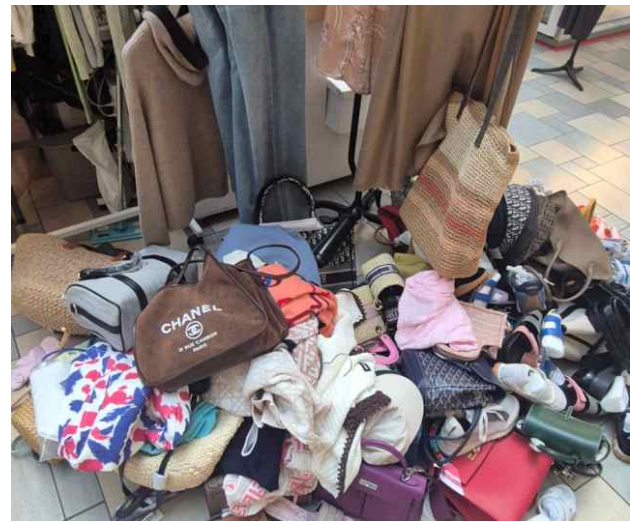
압수물품(가방류)



상점 내 진열된 위조상품 1



상점 내 진열된 위조상품 2



압수한 위조상품



압수물품(시계류)



압수물품(신발류)



온라인상 공유된 현장 단속 내용